

폼페이오, 이번주 뉴욕서 김영철과 회동

“비핵화 논의 좋은 기회될 것” 5개월만에 북미 고위급회담 비핵화 실행-상응 조치 논의 사찰 등도 점점 찾았지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열릴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 개최 장소와 그 카운터파트를 4일(현지시간) 확인하고 이번 회담이 비핵화 논의의 지속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그것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인자’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김 부위원장을 적시하면서 회담 장소가 뉴욕이라고 공식 확인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병진 노선 복귀를 시사하며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과 관련,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economic relief)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지난 5월 말~6월 초 방미에 이어 5개월여 만에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 회담 채널이 재가동돼 북미 대화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미국의 상응 조치 간 빅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핵 관련 시설 사찰

문제도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 고 밝힘에 따라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 진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북미고위급의 이번 뉴욕 회담은 11·6 미 중간선거 직후에 개최될 예정으로 이르면 김 부위원장이 7일 뉴욕에 도착해 8일 본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착한 당일에는 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하는 ‘2+2’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번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완화 공세와 미국의 사찰-검증 요구를 둘러싸고 기싸움도 고조되고 있어서 실제 회담에서 어느 정도 접점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은다. /연합뉴스



美 중간선거 막바지 표심 잡기 미국 11·6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이란 원유 제재...“한국 등 8개국 예외 인정” 中, 10조원 들여 선양~백두산 고속철도 건설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줄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러한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터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연합뉴스

백두산(중국어 장바이산·長白山) 연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동북지역 라오닝성에서 백두산을 잇는 660억 위안(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5일 라오닝성 당국의 입찰감독 인터넷 사이트 확인 결과, 최근 라오닝성 성도 선양(沈陽)에서 백두산 인근 바이허(白河)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위한 역사문화여행평가 입찰 공고문이 게재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철도건설은 선양에서 푸순(撫順), 통화(通化), 바이산(白山), 연변(延邊) 자치주를 거쳐 바이허까지 주요 행정구역 6곳, 13개 역을 지나는 430여km 길이의 대공사다. 중국은 총 660억 위안을 투자해 54개월 안에 철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올 연말 착공

중국, 선양~백두산 고속열차 추진



할 경우 2022~2023년쯤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전기를 주동력으로 쓰는 고속열차가 시속 35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6〉 육지

육지(陸地, 754-805)의 자는 경여로 소주 가흥 출신이다. 대종, 덕종 때의 명신으로 안사의 난 이후 위기에 빠진 왕조 부흥에 기여했다.

부친 육간은 강소성 율양 현령을 지냈지만 요절했다. 모친 위씨 슬하에서 자랐는데 독립심이 강하고 학구열이 뛰어나다. 771년 진사에 급제해 화주 정현 현위에 올랐다. 덕종은 즉위하자 한림학사와 사부원외랑에 임명했다. 군사력을 가진 변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삭번(削藩) 정책으로 조정과 변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783년 8월 경원병변이 일어났다. 조정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경원진의 병사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였다. 절도사 주차도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대진황제로 즉위했다. 황제를 수행해 섬서성 봉천으로 피난을

두창을 호남성 청주별가로 좌천시키고 중서시랑, 동평장사로 임명해 재상으로 발탁했다.

그는 왕조의 흥망성쇠는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고 견유했다. 조정에 인재가 부족한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인사기준이 불분명하고 참언을 맹신하며 과오가 있는 사람에게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커 재임용하지 않는 등 인사의 폐해를 강조했다. 인사선발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토록 하고 재상뿐 아니라 관리들이 자유롭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 그는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한 잔재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재를 지키는 올바른 사람은 뽑히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나친 과거 시험 의존을 경계했다.

판탁지사에 배연령을 쓰려하자 반대했다. “탁지는 만가지 재화를 다루는

안사의 난 이후 위기의 왕조 부흥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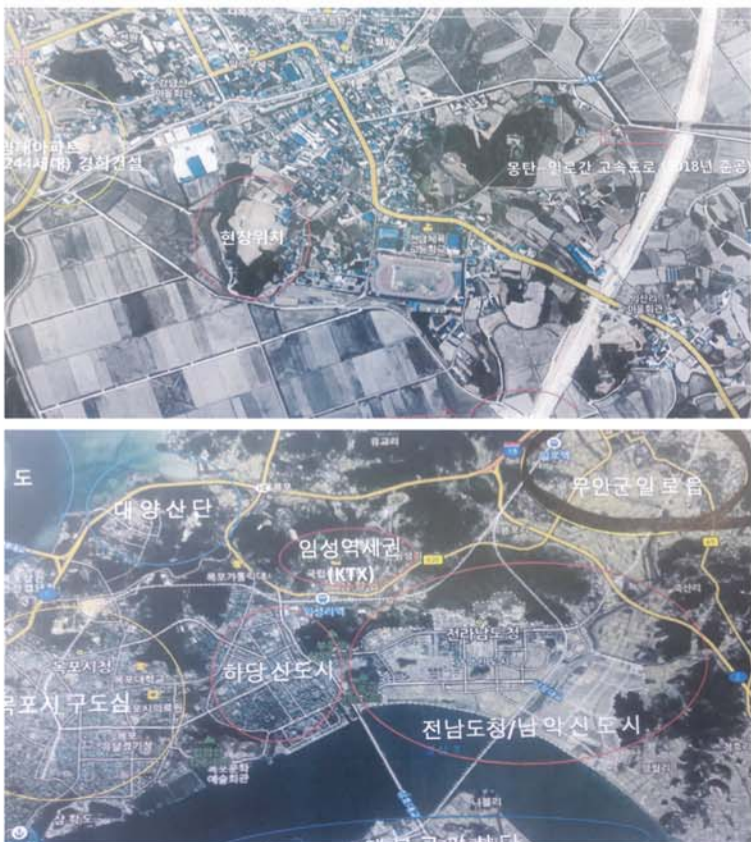
갔다. 많은 신료들이 도망갔지만 굳건히 황제의 곁을 지켰다. 황제가 피난길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작위를 내리려 하자 “작위를 내리시는 것은 언제나 신중하고 아껴야지 가볍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병폐는 바로 작위를 경시하는데 있으니 방도를 세워서 그것을 귀하게 하여야 합니다”고 반대했다. 황제가 대소사를 의논하니 사람들은 내상(內相)으로 불렸다. 피난 중 양주에서 황제와 같이 었갈리자 황제는 그의 처지가 격정스러워 울음을 흘렸다. 그를 찾는 자에게 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무사히 복귀하자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잦은 직언으로 은혜와 대우가 응수했지만 재상으로 발탁하지는 않았다. 심성이 융화한 노기를 내칠 것을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덕종이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는 죄기조(罪己詔)를 발표한 것도 그의 건의 때문이다. 대사면을 건의해 전열, 왕무준 등이 조정에 복귀했다. 장군이 성이 분전해 주차를 처형해 황제가 장안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복귀 후 중서사인이 되었다. 모친이 사망하자 낙양에서 많은 부의금이 왔으나 모두 거절했다. 모친상을 치른 후 병부시랑으로 복귀했다. 재상 두장이 그를 미위해 재상에 발탁하는 것을 반대했다. 792년

곳이므로 각박하고 인색하면 재인이 생기고 너그럽게 용서하면 쉽게 간사하게 됩니다. 배연령은 제멋대로 하는 소인이니 황상께 손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황제가 따르지 않았다. 경제운영과 관련해서는 농민과 지주계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다. 지주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민의 노역과 토지세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했다. 그는 매사에 신중하였다. 이에 덕종은 “경은 청빈과 신중이 너무 지나쳐 지방에서 보내는 음식을 모두 거절하니 아마도 일의 사정이 잘 소통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문을 올려 “뇌물을 주는 길이 한번 열리면 더욱 심해지고 채찍이나 가축신에 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과 옥에 이를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어찌 스스로 마음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직언에 덕종은 그를 멀리하고 배연령을 가까이 하였다. 794년 재상에서 물러나 태자 빈객이 되었다. 배연령은 그가 군심(軍心)을 선동한다고 모함했다. 덕종은 그를 파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795년 충주별가로 좌천되었다. 그곳에서 10년간 두문불했다. 말년 기후가 나쁘고 질병이 많은 백성들을 걱정해 ‘육씨집현방’ 50권을 저술했다. 805년 세상을 떠났다.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악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